

‘통일신라 불교문화 보존’ 곡성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 추진

곡성군, 보존관리계획 수립하고 가치조사 착수

“모든 구성요소 온전히 남아있는 유일한 문화재”

곡성군이 지역의 보물 ‘태안사 적인선사탑’을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승격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지역의 대표 보물인 적인선사탑을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치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적인선사 해철 스님의 임적에 따라 행적을 기리고 사리를 안치하기 위해 통일신라 861년에 조성됐다.

태안사가 선종 동리산문의 명찰로서 구산선문의 시조인만큼 적인선사탑의 중요성이 인식됐고 1963년 1월21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 273호로 지정됐다.

곡성군은 적인선사탑 국보 승격을 위해 가치와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태안사 적인선사탑의 보존관리계획과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올 상반기에 학술대회를 열어 적인선사탑의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해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적인선사탑은 불교사적 가치는 물론 문화적 가치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조형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돋보이며 매우 단정한 품위를 지녔으며 통일신라 승탑 중 기반부에서 상륜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요소가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남아 있는 유일한 문화재다”고 가치를 설명했다.

이어 “태안사 숲길 걷기 행사를 추진해 주민 공감대도 형성할 예정이다”며 “가치가 입증되면 문화재청에 국보 승격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곡성군은 지역의 대표 보물인 태안사 적인선사탑을 국보로 승격하기 위해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가치 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곡성군청 제공)

화순군 ‘청렴식권제’ 도입한다...28개 청렴시책



화순군은 17일 ‘청렴 1번지 화순’을 실현하기 위해 28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비대면 청렴실천 결의대회. (사진=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17일 ‘청렴 1번지 화순’을 실현하기 위해 청렴식권제 도입과 온라인 신고센터 개설 등 28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 청렴도 3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고강도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 평가 3등급 올해 내부 청렴문화 정착 시책 추진
취약 분야 외부 군민참여 확대 방침
‘온라인 공직 비리 익명신고센터’도

화순군은 공사 관리·감독이나 보조금 사업, 재·세정 분야 등 취약 분야에 대해 외부 군민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

난해 도입했던 ‘청렴문자 알리미’를 보완해 ‘민원 청렴 지킴이’를 운영한다.

공직자와 민원인의 협이 길어질 경우 식권을 제공해 군정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는 ‘청렴 식권제’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한다.

화순군은 또 비대면 청렴실천결의대회와 부서별 청렴 UCC 제작 경진대회를 개최해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민원인이 공직자의 갑질이나 금품 요구 등을 신고하는 ‘온라인 공직 비리 익명 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한다.

화순군은 주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 감찰이나 부실 공사 방지 명예감독관,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 운영 등을 강화해 부정·비리 근절에 나선다.

김종갑 화순군 부군수는 “지난해 청렴 정착 원년을 선포하고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31개 청렴 시책을 추진한 결과 청렴도가 상승했다”며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개선하는 등 청렴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한국섬진흥원 어디로 가나?...전남, 전국 섬 65%인 2165곳

다음달 8일까지 광역지자체 공모
전남도, 섬진흥원 설립 최초 제안
전남에 전국 섬 65% 소재 최적지

전남도가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해 최초로 제시한 ‘한국섬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치가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제1차 한국섬진흥원 설립위원회를 열어 설립지역을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 등을 결정했다.

지역 공모는 전남도가 그동안 건의해 온 사안으로 전남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모기간은 17일부터 3월8일까지며 광역자치단체가 2개 이내 후보지(섬)를 보유하고 있는 시·군·구를 신청하고, 이후 균형발전, 입지 여건, 섬 발전정책 사업과의 연관성, 참여도 등 선정 기준에 따라 현장실사와 심사를 거쳐 최종 설립지를 결정한다. 8월에는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정부 출연기관으로 유치할 경우 향후 5년 간 생산유발 효과 407억원, 부가가치 효과 274억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전남도는 2015년부터 ‘섬 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섬 발전연구원 설립·유치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진흥원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6년부터 섬의 날 제정을 건의해 2019년 8월8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다양한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사)한국섬재단, (사)한국섬학회, (사)섬 연구소,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등 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전국 섬의 65%인 2165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런 당위성을 들어 한국섬진흥원의 전남 설립 필요성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건의해 왔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고 섬 연구기관과 단체 집적화로 섬 발전정책 기반 구축이 용이해 섬진흥원 설립의 최적지다”며 “그동안 섬진흥원 설립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만큼 반드시 전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